

재혼가족의 가족갈등 사례분석

A Case Analysis on Remarried Family with Family Conflict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태영*

박사과정 김태한**

Dep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

Professor : Park, Tai-Young

Doctoral Course : Kim, Tae-Han

<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d the repeated conflict of remarried family from family systems perspective, and used the verbatim of family members, who were participated in family therapy, as analysis data. the study used Miles and Hubernam's matrix, graph, and graphical network display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After the couples remarried, a husband and two step-children, who were born in ex-wife, use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method to keep the established family systems. Also, a wife use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method to change the existing family systems. Thes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method, which were used by family members, caused vicious cycle rather than resolving the family conflict. The differences of remarried husband first-married wife, and the differences of blooded and non-blooded relationships among family members had influenced on family conflict.

▲주요어(Key words) : 가족갈등(family conflict), 가족체계(family system), 재혼가족(remarried family), 의사소통(communication)

I. 서론

가족의 형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다양하게 바뀌었다. 전통사회에서는 대가족이 보편적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 동성Moon, Hyuk-Jun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단독가족, 동거가족, 분산가족 등 여러 형태로 늘어났다. 또한 사회와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문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급증한 이혼과 재혼을 통하여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한국사회의 이혼율은 OECD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고, 최근 10여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 비록

2008년도에는 이혼율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는 이혼숙려제도로 인한 신고공백 효과로 보이며 재판이혼은 전년대비 6.9%나 증가하였고,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율도 전년대비 3%나 증가하였다(통계청, 2009). 재혼은 갑작스런 현상은 아니지만 급증하는 이혼으로 인하여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자료에서도 알 수 있는데, 1972년의 재혼구성비는 남자 5.4%, 여자 2.9%인데 반하여 2004년에는 남자 18.2%, 여자 20.4%로 증가하였고,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재혼율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통계청, 2005).

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 다른 구조와 형성과정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의 적응이 어렵다. 이러한 재혼가족의 적응문제는 또다시 이혼으로 이어지는 요인이지만 국내에는 재혼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주저자 : 박태영 (E-mail : typark@soongsil.ac.kr)

** 교신저자 : 김태한 (E-mail : solutionartist@hanmail.net)

(2008)에 의하면 재혼가족의 이혼상담은 2002년 13.3%, 2004년 14.7%, 2006년 1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재혼부부의 이혼율은 초혼부부보다 높고, 두 번 재혼한 부부의 이혼율은 80-9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urstenberg and Spanier, 1984, 김효순·엄명용, 2007에서 재인용). 그런데 재혼가족의 해체는 복잡한 가족구조, 애매한 가족경계, 애매한 사회규범과 같은 특수성과 더불어 가족성원에 대한 호칭에서부터 상실감과 충성심, 가족에 대한 환상과 같은 발달과정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유영주, 2007).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 부부의 이혼사유 1순위는 배우자 폭력(18.3%)이었고(연합뉴스, 2009),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8)의 통계에서도 여성의 이혼상담사유에서 배우자 폭력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재혼가족에서도 배우자 폭력이 부부 갈등과 재이혼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김연옥, 2007). 기존의 배우자 폭력에 관한 연구들은 배우자 폭력의 발생원인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고, 주로 개인적 특성과 가족내적 특성을 중심으로 다루거나 부부갈등, 부부권력구조와 규범, 부부의사소통과 관련지어서 살펴보았다(김지영·최상진, 2004; 김재엽·최수찬, 2005; 김재엽, 2007).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초혼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된 것들이며, 재혼가족에서의 배우자폭력이나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듯하다. 기존 재혼가족의 갈등에 대한 연구들은 구성원 중 한명을 인터뷰하거나 설문조사해서 얻은 내용이 대다수이며 가족성원들의 관점에서 서로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적용한 것은 거의 없는 듯하다. 가족의 갈등을 한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체계가 가지는 역기능적 결과로 보는 가족 체계론적 관점은 복잡한 상호작용의 맥락을 통해 가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유영주, 2007). 현실적으로 재혼가족에 대한 사례접근이 쉽지 않고 가족갈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담사례를 통한 가족 내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족갈등의 경험은 재혼가족에만 있는 특수성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혼가족의 독특한 상호작용의 특성을 통해서 재혼가족성원들이 경험하는 갈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체계론적 관점의 가족갈등이해

체계론적 관점은 가족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의 전체로 이해하며 사이버네틱스이론과 일반체계이론의 영향을

받았다(Goldenberg and Goldenberg, 2007). 이 관점은 가족의 문제를 한 부분의 문제로 보는 직선론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부분들의 순환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체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한다(정문자·정혜정·이선훈·전영주, 2007).

1) 가족 항상성과 갈등지속

항상성은 유기체가 자동적으로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외부세계와 정보를 교환하고 체계 내부와 외부의 균형을 조절하는 가운데 형성된다(Goldenberg and Goldenberg, 2007). 이러한 항상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 갈등있거나 혼란스러운 가족은 위기상황에서도 항상성 기제를 사용하며, 가족갈등과 같은 병리적 증상도 가족의 균형을 안정시키려는 항상성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Haley, 1963). 가족체계는 안정된 상태를 추구하면서도 외부체계들의 압력에 반응하여 변화하는데 이때 체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을 피드백(feedback)이라 한다. 피드백 정보는 정적(positive)이거나 부정(negative)일 수 있다. 정적 피드백은 현재 상태의 변화(일탈)를 요구하는 신호이며, 부정 피드백은 현재 상태의 안정(현상유지)을 요구하는 신호이다. 부정 피드백이 지배적인 가족은 융통성이 없고 질식할 것 같고, 변화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 체계에 해로운 행동을 한다. 반면에 정적 피드백이 지배적인 가족은 체계가 붕괴하거나 자기파괴의 지점까지 이르도록 하고 지속적인 불균형 상태를 만든다. 이러한 피드백들은 서로 피드백 고리(feedback loop)를 이루어 순환적으로 체계의 기능을 교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Goldenberg and Goldenberg, 2007).

그런데 가족갈등은 구성원들이 반복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잘못된 시도를 하면 갈등을 더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악순환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Watzlawick, Weakland and Fisch, 1974). 특히 가족체계가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정 피드백은 오히려 그 갈등을 확장시키는 정적 피드백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Nichols and Schwartz, 2007). 따라서 가족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가족들이 사용하는 폭력이나 비난과 같은 비효과적인 방식들은 오히려 가족의 적대감을 심화시키고 갈등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Cordova, Jacobson, Gottman, Rushe, and Cox, 1993). 이처럼 가족체계를 안정화시키는 항상성의 기제는 갈등의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지속하게 만들므로써 가족체계의 역기능을 조장할 수 있다.

2) 역기능적/기능적 의사소통

인간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며 모든 의사소통에는 내용과 지시의 두 가지 수준이 따른다. 특히 지시 수준의 의사소통은 양자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진술이며 암시적인 특성이 강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Watzlawick, Beavin and Jackson, 1967). 만약에 의사소통에 있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계가 평등하다면 의사소통은 대칭적이 되고, 평등하지 않다면 보완적인 특성을 나타낸다(Bateson and Jackson, 1964). 특정 의사소통의 형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어느 하나에 고착될 때 양자 간에 갈등이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정문자·정혜정·이선혜·전영주, 2007). Satir와 Baldwin(1983)은 의사소통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았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은 본인이 자신과 타인과 상황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두 사람 간에 의사소통이 기능적이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해소에 유익하며 상호 자존감을 높여주지만 그렇지 않고 역기능적이라면 의사소통의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해서 진실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에는 회유하고 비난하고 계산하고 혼란시키는 방식들이 있다(Satir, 1988).

또한 Madanes(1981)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맥락적 부분을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의사소통방식은 두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측면을 설명하는 디지털 의사소통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양자의 관계측면을 설명하는 아날로그 의사소통 방식이다(Greene, 1996). 디지털 방식은 가리키는 내용에 대하여 하나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반면에, 아날로그 방식은 맥락을 고려하고 문화적 의미를 유추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잘못에 화를 내는 것은 자녀의 잘못을 고치려는 행위(디지털 방식)이지만 남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은유적 행위(아날로그 방식)이기도 하다. 만약에 가족 안에서 권력을 잘 배분되고 조화로운 위계(hierarchy)가 형성되면 구성원간의 서로 만족스럽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우세하지만 권력배분이 적절하지 않거나 부조화로운 위계가 형성된다면 불평등을 느낀 사람은 증상행위라는 아날로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요구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증상적 행위는 개인의 정서 및 신체적 질환에서부터 타인에 대한 폭력, 비난, 철회, 침묵도 모두 포함된다(Madanes, 1981). 만약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메시지의 디지털 측면만 중시하고 아날로그적 측면을 무시한다면 부조화스러운 위계의 자기조정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패턴은 반복될 것이다.

2. 재혼가족에서 갈등

1) 가족경계의 모호성

재혼가족은 기능과 관계에서 다른 유형의 가족들과 매우 다르다(Dunn, 1995). 그러한 차이점 중의 하나가 가족경계의 모호성인데 이것은 가족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함을 가리키는 말이다(Boss and Greenberg, 1984). 가족경계의 모호성은 가족구성원의 상실이나 추가가 갑작스럽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Burns, 1987; Boss, Caron, Horbal, and Mortimer, 1990), 재혼 자녀들과 같이 사는 재혼한 부부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다(Boss, 1980). 또한 가족스트레스, 역기능적 관계들, 우울의 유발 등과도 관련성이 높다(Boss, 1980; Burns, 1987). 재혼가족의 모호한 경계는 남성배우자가 이전 관계에서 자녀가 있을 때에 빈번하고(특히 여성배우자와 적대적일 때), 그리고 배우자들이 각각 이전 결혼관계로부터 생긴 자녀를 두고 함께 양육할 때에 가장 빈번하다(Pasley, 1987). 공동자녀들이 가족의 통합성을 높인다는 연구들도 있지만(Hofferth and Anderson, 2003; Beer, 1992), 다른 연구들은 공동자녀의 출생이 오히려 역할혼란을 만들고 경계의 모호성을 증가시킨다고 본다(Ambert, 1986; Fine, 1995). 가족구성원에 대한 명확함은 가족의 일상적 기능에서 아주 중요하다(Ganong and Coleman, 2004). 가족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는 가족갈등에 대처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안정성을 깨뜨림으로서 쉽게 해체되도록 만든다(Stewart, 2005).

2) 부부갈등

재혼하는 남녀는 이미 자녀가 있을 때에 기존에 형성된 가족체계 속으로 편입해야하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부모-자녀관계에 적응해야하므로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만들기가 힘들다(김효순·엄명용, 2007). 게다가 대체로 재혼 할 때에 구혼기간이 짧거나 준비 없이 재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부부의 적응은 초혼부부보다 더 어렵다(Hanna and Knaub, 1984; Ganong and Coleman, 1989). 그렇기 때문에 재혼가족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부관계의 강화이다(Visher, Visher and Pasley, 1997). 재혼가족에서 부부간의 강한 유대감은 재혼부모-자녀관계를 좋게 만들고, 다른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완화작용을 한다(Mills, 1984; Visher and Visher, 1988). 재혼부부가 친자녀와 재혼자녀를 대하는 방식에서 부부체계를 견고히 만들지 못하고 소원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부부 유대감의 손상으로 이어진다(박태영·김태한·김혜선, 2009). 특히 재혼부부의 결혼생활에서 재혼자녀는 갈등요인이 되는 동시에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Ganong and Coleman, 2004). 재혼모들은 재혼자녀를 견딜 수 없이

싫은 존재로 느끼고(Ganong and Coleman, 2004; 김연옥, 2007), 재혼자녀가 없었다면 결혼생활이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Ambert, 1986). 이처럼 재혼부부의 갈등에서 재혼자녀들은 이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재혼한 부부의 관계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hite and Booth, 1985; Booth and Edwards, 1992).

3) 부모-자녀의 갈등

재혼가족의 부모-자녀관계는 초혼가족과 달리 비혈연적 관계와 비혈연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재혼은 부모의 필요성에 따라 부모-자녀관계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연관계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Sturgess, Dunn, and Davies, 2001; Ganong and Coleman, 2004; 김효순·엄명용, 2006; 김연옥, 2007). 재혼모들은 재혼자녀들과 더 많이 접촉하고, 재혼부보다 자녀양육에서 더 큰 책임감을 요구받기 때문에(Ambert, 1986) 재혼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Aguilino, 1994; Coleman and Ganong, 1997). 양육적 책임을 떠맡은 재혼모는 재혼자녀와 관계에서 이들을 사랑하도록 요구받는다(Smith, 1990). 재혼자녀의 아빠를 사랑하고 재혼자녀의 좋은 엄마가 되고 친엄마와 같은 느낌을 갖도록 요구받는다(Dainton, 1993; Visher and Visher, 1988). 그러나 이것은 실현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기대이다(Dainton, 1993). 생물학적 가족과 달리, 재혼부모는 관계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신호와 징조를 추구하지만 재혼자녀들이 재혼부모의 사랑과 애정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 재혼부모는 아주 강력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Visher and Visher, 1990). Currier(1982)는 재혼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기대를 가지는 단계로부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되는 과정을 9단계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재혼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초기에 과도한 기대와 즉흥적 사랑을 가지고 좋은 재혼모 즉 친모처럼 되려다가 결국 나쁜 재혼모가 되고 마는 과정이다. 대체로 재혼모들은 재혼자녀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Ganong and Coleman, 1999), 재혼자녀들에 대해 지나친 관여를 하고 이것은 결국 양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Guisinger, Cowan and Schulberg, 1989). 부모가 권위있는 양육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가족에서 아동의 좋은 결과와 관련성이 있지만, 재혼가족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권위있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오히려 어린 재혼자녀들에게 분노와 저항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Kurdek and Fine, 1995). Hetherington과 Jodl(1994)의 연구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재혼부모의 성공적인 전략은 자녀들과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고, 통제하는 엄격한 사람의 역할을 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재혼자녀에 대한 양육이 성공적이라면 재혼부모는 자녀에게 매이지 않는 상

태로 남고 자신의 친자녀들이나 이혼하지 않은 일반가정의 부모보다 덜 권위적인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초기 청소년인 재혼자녀들은 더 어린 자녀들의 경우보다 재혼부모와 갈등이 많다. 따라서 재혼초기 단계에서 자녀의 행동을 바꾸기 보다는 부모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갈등상황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재혼가족은 전환기적 특성으로 인해 소속감형성, 친밀감의 증진, 협력 등의 과업을 성취해야 하고, 청소년기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독립뿐만 아니라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Minuchin, 1984).

III. 연구방법

1. 대상 및 문제력

본 사례연구는 이혼의 위기상황에서 가족치료에 참여한 가족성원들의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분석되었고, 연구대상은 남편(43), 부인(41), 남편의 딸(19, 이하 딸)과 아들(15, 이하 아들)로 구성되었으며 상담은 1999년 8월부터 2000년 9월 3일까지 총 19회기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남편은 재혼이고 부인은 초혼이며 현재 부부의 결혼기간은 약 2년이었다. 남편은 초혼 5년 차에 가족들과 미국에 건너가서 생활하다가 전부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결혼한 지 9년 만에 이혼하였다. 남편은 직장일로 먼저 귀국하였고 부인과 자녀들은 미국에서 같이 생활하였지만 갈등으로 인해 자녀들이 먼저 귀국하고 뒤이어 부인이 귀국하였다.

부인이 호소한 문제는 남편이 폭력을 쓰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것이고, 남편은 부인의 잔소리와 지적 때문에 폭력을 쓰게 된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부인과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결혼하였다. 결혼 이후에도 남편은 화가 나면 부인을 때렸고 거친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신체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남편은 자녀들 앞에서 부인을 때리기도 하였다. 남편은 자신의 폭력을 부인의 잔소리와 지적에 대한 '항거'로 표현하였다. 즉, 남편은 자신과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완벽주의 경향을 가지고 간섭하고 지적하며 비꼬는 말투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부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였다. 결혼할 당시에 부부는 서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마음이 잘 통하는 관계였지만 재혼이후 부부갈등과 모자녀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가족관계는 악화되어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

2. 연구 질문

- 첫째, 재혼 부부의 갈등반복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 둘째, 재혼 모-자녀의 갈등반복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 셋째,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재혼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3. 분석방법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질적 분석방법 중 사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질문과 관련된 주제들을 자료 속에서 반복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가족의 역동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방대한 자료를 요약하기도 하였고, 유사한 개념들끼리 분류하여 범주화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범주들의 설명과 탐구분석의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해서 Miles와 Huberman(1994)이 제시한 효과매트릭스(effect matrix), 시간 순서적 매트릭스(time-ordered meta matrix)를 사용하였다. 또한 그래픽 네트워크 배열(graphical network display)을 활용하여 대상, 갈등요인의 관계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신실성과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서 축어록, 상담기록지를 활용하였으며, 진술내용들을 인용문으로 제시하였다. 상담자와 연구자의 토론,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과 토론을 통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고, 제공되는 다른 관점들을 반영하였다.

IV. 사례분석

1. 재혼 부부의 갈등반복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본 사례의 재혼부부가 경험하는 갈등은 위기, 냉전 그리고 회복 또다시 위기로 이어지는 반복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갈등의 주기적인 측면을 피드백고리와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남편: 기존 가족체계를 옹호하고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사용

남편은 재혼하였지만, 여전히 자신과 자녀들이 살아온 기존 가족생활의 틀을 변화시키지 않고 고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은 <표 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남편은 부인이 이혼한 전처의 역할을 계승해주시기를 원하였고, 자녀에게는 좋은 엄마의 역할을 해주기 바랐다. 남편은 이전 결혼생활에도 그러했듯이 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집안일을 하였다. 남편은 가사일을 하는 자신에게 부인이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끼기를 원하였으나 오

히려 부인은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해서 남편은 부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못마땅해 하였다.

(남편이 평소에 바라는 것은) 제가 정말로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365일 24시간 즐겁기만 하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저한테 '내가 밥을 하겠냐? 애들한테 잘하라고 했냐? 시부모한테 잘하라고 했냐? 그런 것 다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는 차라리 '애들한테 잘 해달라' 대신에 '당신한테 잘 해줄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저 솔직한 심정이에요. (남편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줬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1회기, 부인)

또한 남편은 기존 가족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는 부인을 통제하려고만 하고, 부인의 생활방식을 존중하거나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부인이 동서에 대해서 '그 여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남편은 매우 화를 내고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부인에게 '그 여자'라는 낱말은 편안하고 좋은 의미였지만 남편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남편은 기존의 가족생활방식이나 자신의 가치관에 부인이 편입되기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것이 용납되지 않을 때에 부인이 행동이나 태도를 통제하기 위해서 부인에게 폭력과 욕설을 사용하였다.

(남편이)아주 심한 욕이 나와요. 처음에는 왜 욕을 하냐고 욕하지 말라고 이렇게 두 마디가 오가면서 욕이 폭력이 되지요.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써요. X같은 X, 조금 더 심하면 XXX 그런 말어요. 구타는 말도 못해요. 얼굴도 멍들 때 있고요 시계를 던져서 꽤맨 적이 있어요. (1회기, 부인)

뭔가 억울하고 한스럽고 뭐라도 건드리면 저는 폭발을 해버리고 저(부인) 입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1회기, 남편)

특히 부인이 남편의 행동을 지적하고 간섭할 때에 남편은 폭력과 욕설을 행사하면서 부인보다 높은 위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부인이 남편의 폭력으로 감정이 상하여 침묵과 정서적 단절을 보이면 남편은 후퇴하면서 부인보다 낮은 위계의 상태에서 부인을 회유하였다. 위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남편의 의사소통행위는 새롭게 형성된 재혼가족의 상황에 자신을 맞추기 보다는 기존의 초혼가족체계를 유지하면서 부인을 여기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였다.

<표 1> 남편의 의사소통방식 매트릭스 → 남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 매트릭스

구분	상위 위계(강자)에 놓일 때	하위 위계(약자)에 놓일 때
언어	부인에 대한 욕설, 처가식구에 대한 모욕 죽여버리겠다는 위협 친자식과 함께 나가서 따로 살겠다는 표현 화나면 무섭게 고함 지름 (부인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비난	내가 이렇게 해줘도 당신은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는 식의 달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 가장 완벽한 최고의 여자라는 표현 폭력중단에 대한 약속
행동	<폭력과 복수> 부인을 주먹과 손으로 때리고 신체에 상해를 입힘 물건을 부수고, 자녀들 앞에서 부인을 때림 부인이 밥하는데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음 정관수술을 풀려고 하지 않음 처가보다 친가식구들을 더 챙김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의 집안일 부인에 대한 감정으로 울음
생각	무조건 부인의 입을 막아야한다 나는 피해자이고 폭력은 정당방위이다.	나는 병들었다고 함 부인에게 인정과 사랑받기를 원함
감정	폭발하는 분노	미안함과 수치심

<표 2> 부인의 의사소통방식 매트릭스 → 부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 매트릭스

구분	상위 위계(강자)에 놓일 때	하위 위계(약자)에 놓일 때
언어	~하지 말라. ~해라 등의 지시와 강요표현 사기치고 있다는 식의 비아냥거림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는 이중구속 사용 자녀에게는 비난과 욕설, 남매간 비교 남편을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들 시집식구와 친정식구들의 비교	침묵 혹은 짧은 대답 이혼을 요구함
행동	자녀들을 때림 부인의 스타일대로 정리정돈을 강요함	집을 나가서 따로 생활함 울음 생활에 대한 무관심과 불쾌한 표정
생각	내가 아이들을 바르게 잡아주어야 함 남편의 행동은 사회적 기준에 부적절함	포기하고 신경쓰지 않음 자신을 위해서 살기로 함
감정	가족성원에 대한 답답함과 한심함 자신에 대한 우울감	우울감과 무기력 수치심과 억울함 자기패배감정

2) 부인: 기존 가족생활을 변화시키고자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 사용

부인은 재혼 이전의 가족체계를 옹호하고자 하는 남편에 대항하여 가족체계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부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은 <표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인은 상대방의 대화를 차단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비아냥거리는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부인의 의사소통방식은 남편과 자녀들의 반발감을 부추기고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서 기존의 부-자녀가족체계가 변화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와이프가)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뒤통을 떨어뜨려라, 목소리가 너무 크다, 어깨를 펴라... 제가 감성적인 사람이니깐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소리 표현력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와이프는)

그런 것을 꼭 제지를 했고. (4회기, 남편)

와이프가 언제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아기를 너무너무 이뻐해요. 조카가 왔는데 ‘아이고 이 빠라’ 하는데 그때 와이프가 ‘언제부터 이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꼬부라졌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같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런 식이에요. (9회기, 남편)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 위계에 놓여 있을 때에 남편과 자녀의 기존 생활방식을 고치기 위해서 비난, 지적, 잔소리, 간섭과 같은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폭력과 욕설을 사용하면서 다시 높은 위계를 차지하고 부인은 낮은 위계에 놓였다. 그러나 부인이 폭력과 욕설에 희생되어 침묵, 철회, 불쾌한 표정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시도하면 다시 남편의 위계는 낮아지고 부인은 높은 위계를 차

지하게 되었다. 위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부인의 의사소통 행위는 남편과 자녀의 기존 가족생활을 변화시키고자하는 시도였다.

3) 기능적 의사소통의 위축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부는 서로의 반응을 의식하고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따라서 두 사람간의 솔직한 감정표현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부인은 자신의 반응에 대한 남편의 폭력과 욕설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남편을 대할 때에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제가 저 사람(남편)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을 때에도 '(남편은 내가)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니깐, 극단적인 예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부딪칠 것 같을 때 제가 '어'하고 놀래잖아요. 그러면 '어' 소리했다고 기분 나빠해요. 자기가 운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 소리도 못하지요. (1회기, 부인)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19회기, 부인)

남편도 자신의 반응에 대한 부인의 지적과 비난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부인에게 부인을 대할 때에 긴장하고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조심스러워 질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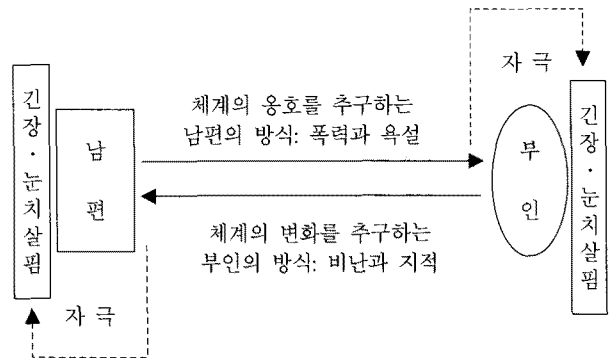
아침에 빵이 있을 때도 있고 밥이 있을 때도 있고 제가 아침을 차려서 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빵 드실래요? 밥 드실래요? 그러면 '안 먹을래, 안 먹을래? 하면서 '추궁하지 말라!'고 '추궁당하는 기분'이라고 그래요. (1회기, 부인)

부부 간의 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감소하면서 소극적, 간접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부인이 들어오자 전화하던 딸이) 그때 분위기를 어떻게 느꼈는지, 야단맞을까봐 전화하던 상대방에게 뭐라 뭐라 하면서 딱 끊었는데. (8회기, 부인)

엄마는 우리 가족을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지 표정이 시무룩해지시면 아빠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또 '왜 그러냐?'고 하면서 싸우세요.(중략) 엄마 표정이 그러시니깐 아빠가 왜 그러냐고 하시고 대부분 싸워요. (6회기, 아들)

부부의 반복되는 갈등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남편은 폭력과 욕설로 부인을 통제하고 기존 가족생활방식을 옹호하려고 하였고, 부인은 비난과 지적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역기능적 방식이 갈등을 초래하자 부부는 서로의 반응을 예상하면서 긴장하고 눈치를 살피었다. 그러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부부는 다시 상대방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려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갈등을 재현하였다.



<그림 1>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그래픽 네트워크

3. 재혼모-자녀의 갈등지속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1) 자녀: 기존 가족체계를 옹호하고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사용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친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한국과 외국을 오가면서 생활하였고, 부모보다는 조부모와 더 가깝게 지냈다. 따라서 자녀들은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없는 자유롭게 생활방식을 선호하였다. 자녀들은 부의 재혼으로 새엄마가 생기면서 기존의 생활방식에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엄마는 제가 보기에 완벽주의자예요. 우리가 자라온 사고방식과 매우 달라서 완벽을 바라세요. 가족 전부에게 완벽하기보다는 자기 눈 보기에 완벽한 것을 바라세요. 아빠는 그런 것을 싫어하지요. 대충 넘어가는 성격인데 그게 엄마랑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빠는 청소도 대충하시고 하기 싫으면 안하시는데 엄마는 하기 싫어도 해요. (6회기, 아들)

자녀들은 부인을 부의 배우자로만 여기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부인의 양육적 관여에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반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자녀들은 부인에게 드러내고 대항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만 순종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부와 밀착함으로써 서로 갈등상황에 있던 부인을 소외시킴으로써 부인의 양육적 역할을 배제시켰다.

그런데 아들이 나한테 욕하고 덤빌 때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어요. (8회기, 부인)

OO야 '비듬이 떨어지니까 머리 좀 감아라! 라고 하면 한국에 있을 때에는 며칠에 한 번씩 감아도 깨끗했는데 외국에 오니깐 매일 감아도 더러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안 감은 줄 뻔히 아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8회기, 부인)

'아빠가 (나를) 때릴 때 내가 너한테 경찰에 전화해 달라고 얼마나 사정해도 한 번도 아는 척 안하고 그럴 수 있냐. 니가 (나를) 엄마라고 생각을 하나? 그랬더니 '진짜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너 그게 무슨 말이나?'고 했더니 '애도 없고 진짜로 결혼한 것이 아니잖나?' 이거예요. '엄마하고는 금방 헤어질 거고 자기는 아빠하고 살아야 하는데 아빠가 감옥 가면 자기는 어떻게 사나?'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워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7회기, 부인)

2) 부인: 기존 가족생활의 변화시키고자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사용

부인은 결혼하자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우고, '좋은 엄마', '친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부인은 자녀들의 무질서한 기존의 생활습관을 바로잡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부-자녀의 관계가 재혼모-자녀의 관계보다 더 견고하였기 때문에 부인은 자신의 영역을 만들지 못하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닭아라. 부터 시작하지요. 남편은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중략)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아들을 학교 보내고 도시락 두 개씩 매일 싸서 갖다 주고 나서 저는 학교에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19회기, 부인)

내가 외국에 있는 동안 줄곧 애를 빨리 훈련시켜서 남들 보기에 번듯한 애로 만들겠다는 거의 강박적인 생각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애가 너무 달라졌다고 좋은 피드백을 받으니까 저는 좋은 줄만 알았지요. (8회기, 부인)

저는 애를 들볶았어요. 결과가 좋으니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 아이 인생에 7, 8년 동안 받지 못한 것을 3, 4년 동안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고 무리는 했지만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8회기, 부인)

부인은 양육방식에 저항하는 자녀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에 잘해주던 태도를 철회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부인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부인이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의사소통 방식은 유도질문, 비난과 위협, 욕설과 폭력 등이었다.

한번은 그날 갑자기 너무나 못 참겠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그것을 애가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때리고 자극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7회기, 부인)

엄마는 많이 때려요. 외국에 있을 때.. 그때 사이가 완전히 벌어졌는데요. 그때 365일 매일 맞았을 거예요. 무자정 때려요. 무기도 쓰고 손발도 쓰고 발로 까고 그냥 패는 거예요. 뺨때리고 발로 차고요. (6회기, 아들)

제 동생한테 들은 이야긴데 엄마는 책보고 제 동생은 서서 3시간 정도 있었대요. (5회기, 딸)

특히 부인은 자녀들을 추궁하면서 이중구속적 의사소통을 하여 자녀들이 이래도 저래도 혼나도록 만들었으며, 유도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말하도록 하였다.


저의 성씨가 싫다고 말하세요. (엄마는) 아빠, 누나, 저를 싫다고 말해요. 왜 사냐? 차라리 그렇게 살라면 죽어라고 저에게 말해요. (6회기, 아들)

전화가 와서 통화하고 있었는데 전에도 (제가) 전화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들어올 때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오니깐 신경질적으로 끊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저를 그런 식으로 내모는 거예요. 니가 그러는 것은 하기 싫어서이거나 XX이라고 하니깐 할 말이 없잖아요. 항상 저를 거짓말장으로 내모는 거예요. (5회기, 딸)

그날은 쓰레기 안 버리는 날인줄 알고 안했는데 왜 안 버렸냐고 하시면서 바보냐고 그러셔서 XX 아니라고 하면 그럼 왜 안하냐고 하면 말을 못하지요. 네가 안한 이유는 XX 아니면 XX이 아니면 내가 싫어서 일부로 안했거나 귀찮아서 안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그중에 하나를 안 고르면 XX냐? 귀찮아서 안했냐? 내가 싫어서 안했냐? 셋 중에 하나 고르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싸우는 게 한 시간 걸려요. 만약에 셋

<표 3> 재혼 모-자녀 간의 관계변화 과정 매트릭스

과정	부인	상위범주	자녀
초기 (재혼직후) 	연민과 동정심으로 접근 친자녀처럼 대하려함 규칙적이고 반듯한 생활을 시도 엄마로서 사회적 이미지를 고려	초기의 친밀	좋은 첫인상으로 반김 애교와 많은 대화를 시도 친절함과 관심을 느낌 쉽게 부인에게 동화됨
	강제로 생활을 변화시키려함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희생 자녀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음	통제와 거부	부인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 부인의 행동을 간섭으로 느낌 기존의 생활방식을 고수
	강력한 제재와 처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 자녀들에 대한 미움 증가	갈등 심화	자녀들의 저항(욕설, 거짓말) 의사소통을 거부함 집을 떠나 조부모집에서 생활
후기 (상당직전)	내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 형식적 관계의 유지 자녀들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음	체념과 포기	갈등없는 상태로만 있기 바람 부인의 생활에 무관심 과거의 안 좋은 기억으로 대함

중에 하나 말하잖아요. 그러면 또 왜 그랬냐고 그래서 아예 말 안하고 있는 것이 나요. 말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말 안하고 듣고 있다가 엄마가 지치고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6회기, 아들)

3) 기능적 의사소통의 위축

시간이 지날수록 부인은 강자의 위치에서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였고, 자녀들은 약자의 위치에서 변화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모-자녀 관계의 친밀감은 형성되지 못하였고 표면적인 내용만 다루는 의사소통방식이 형성되었다. 부인은 자녀들에 대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자녀들도 부인에 대해서 '엄마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점점 양측은 무관심과 소원해졌다.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서 싸우지 않고 밥만 주고 그냥 놔두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이 만족스러워요. 무관심이 좋아요. 아빠가 뭐라고 하면 아빠한테 미안한 생각이 있고 엄마는 저를 혼내면 증오심이 더 생기니까 피하는 거고요. (6회기, 아들)

저는 (부모가) 이혼하든 안하든 상관없거든요. 이제는 관심없어요. 한번은 (부모가) 저런 사람(새엄마)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나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아빠가 선택을 한 거니까 저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5회기, 딸)

할머니 말은 잘 듣는데 내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냐고 하면 '할머니는 그런 것 안 시켰는데 엄마는 왜 시키냐?'고 해서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8회기, 부인)

부부의 갈등은 상황에 따라서 두 사람이 차지하는 위계의 위치가 자주 바뀌었지만 재혼모-자녀의 갈등은 특별한 위계의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재혼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위축되고 역기능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를 시간 순에 따라 구분하면 서로 초기의 친밀단계, 통제와 거부, 갈등심화, 체념과 포기의 단계로 이어졌다.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혼모-자녀의 관계도 초기에는 아주 좋았지만 모의 기대감과 책임감에 기여한 과도한 양육적 관여와 통제가 모-자녀관계를 악화시키고 마침내는 소원하게 만들었다.

4.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재혼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1) 부부의 재혼과 초혼의 입장차이

초혼인 부인은 남편과 사이에서 자신의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하였으나 남편은 10여 년 전에 정관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하였고 이것은 부부갈등에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저는 항상 집사람에게 빚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를 못 낳는다는 것, 제가 정관수술을 했거든요. (1회기, 남편). 문제는 그거예요. 애를 못 낳게 하고.... 도대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회기, 부인)

부인은 남편이 정관복원 수술을 해주기 원하였지만 남편은 비용이 너무 비싸며, 정관수술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복원수술을 해도 임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부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알아봤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성공률이 30%로 낮다고 한대요. 성공률이 1%만 되도 해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잖아요. 애를 낳아서 엄마가 되는 게 너무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회기, 부인)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재수술을 해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가지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부인에게는 커다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 남편도 부인의 임신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늘 마음에 빚진 상태를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임신을 주저하는 이유는 현재의 가족관계도 어려운데 새로 아기가 태어나면 더 복잡해 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에 결혼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했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그런데 다시 애기가 태어나고... 제가 두려운 것이 뭐냐면 아이에 관한 것이예요. (3회기, 남편)

임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부인도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부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지 않는 것이 부부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남편은 수술할 비용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동차를 살 때에는 빚을 내는 모습을 보였고, 부인의 친구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할 때에 남편은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서 부인은 남편이 핑계를 댄다고 느끼고 있었다.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부부로서의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였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남편과 언제라도 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아내의 아기를 못 낳는 것에 대한 한이 얼마나 큰지 잘 알아요. 제가 집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낳고 왜 너하고 살겠냐고 하더라고요. (4회기, 남편)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같이 살지만 자식도 없고 같이 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살아서 당신 자식이나, 나나, 당신이 죽을 지경인데 그렇다고 변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18회기, 부인)

2) 부모-자녀의 혈연과 비혈연의 관계 차이

자녀들은 새엄마인 부인보다 친아빠인 남편과 더 정서적으로 가까웠다. 남편도 자녀들보다 부인을 더 사랑한다고 말

하였지만 정서적인 면에서는 자녀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혈연과 비혈연의 분리현상은 부부 갈등이 발생할 때에 두드러졌다.

저하고 싸우고 나면 '너 없이도 혼자서 애들 잘 키울 거야 걱정마라' 라고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해서는 안 될 말을 이 사람이 계속 해왔어요. (10회기, 부인)

저는 지금 다 집어치우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3회기, 남편)

부인은 남편이 혈연관계인 자녀들을 지나치게 감싸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부인은 자녀들의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하여 엄격한 양육방식을 사용하였다.

집사람이 아이들한테 잔소리가 너무 과도해요. 예를 들면 컵문제로 제가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컵을 무제한으로 써도 돼요. 그런데 (부인은) 이 컵을 써라 지정을 해줘요. (3회기, 남편)

제가 집에 없을 때 아빠가 밥을 하면 애들이 안 도와줘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가 쌓이고 지저분해서 제가 할까봐 아빠가 얼른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좀 아빠를 도와주면 좋겠어요. (8회기, 부인)

그러나 부인이 자녀들의 생활에 관여할수록 남편은 자녀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우회적으로 혹은 은밀히 자녀들과 결탁하였다. 이런 행동은 부-자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엄마로서 부인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양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부인은 무기력감과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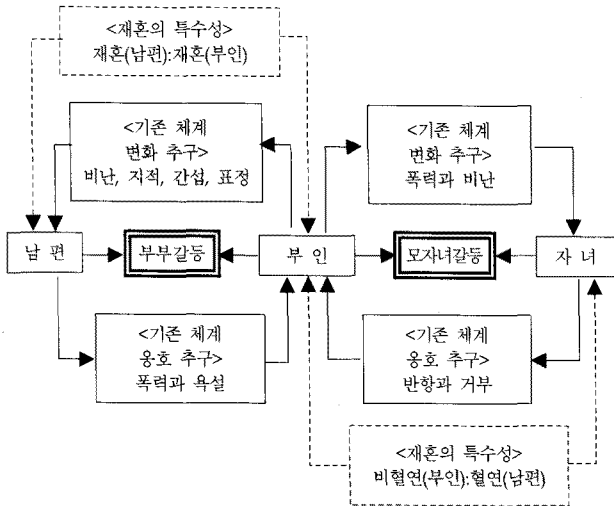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있으니깐 이번에 방학이라서 딸이 집에 와서 네 사람이 모두 있었는데 그 긴장감이 돌아 버려요. 다 같이 좋은 것이 아니니깐. 제가 할 수 있는 방책이라는 것은 격리예요. 가족을 흩어놓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빨리 커서 (집에서) 나가라는 것 밖에 없어요. 집사람이 과도한 것이 많아요. (3회기, 남편)

저는 그 한 조각인 것 같은 이질감이에요.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요. 다른 가족들은 벌써 십 수년간 함께 살아왔고 저는 외국에서 끼어들어서 이질감 같은 것을 느꼈는데. (2회기, 부인)

그때 '아! 애가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간섭하고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8 회기, 부인)

5. 재혼가족의 가족갈등 도식

본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재혼가족의 갈등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가족갈등의 그래픽 네트워크

V.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가족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혼가족의 독특한 상호작용의 특성을 통해서 재혼가족성원들이 경험하는 갈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혼 부부의 갈등특성을 살펴보면 남편은 이전 결혼에서 형성된 기존의 가족체계를 옹호하고자 시도하였고 이를 위하여 역기능적 의사소통인 폭력과 욕설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역시 부인은 기존의 가족체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족체계를 형성하고자 시도하였고 이를 위하여 역기능적 의사소통인 비난, 지적, 간섭, 불쾌한 표정을 사용하였다. 양측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은 상대방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나타내면서 갈등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하여 긴장하고 눈치 보기 때문에 기능적 의사소통이 위축되었다. 또한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상황에 따라서 부부의 위계는 주기적으로 변화하였고 관계 질도 달라졌다.

둘째, 재혼 모-자녀의 갈등특성을 살펴보면 부부갈등과 마

찬가지로 자녀들은 기존 가족체계를 옹호하려는 시도하면서 저항과 거부의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였다. 부인도 기존의 가족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폭력과 비난의 의사소통을 사용하였다. 양측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방식은 부부갈등과 마찬가지로 악순환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인 모-자녀관계가 되었다.

셋째,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친 재혼가족의 특수성은 초혼과 재혼의 입장차이, 혈연과 비혈연의 관계 차이로 구분되었다. 초혼과 재혼의 입장 차이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쳤는데 초혼인 부인은 새로운 자녀를 가지기 원하였으나 재혼인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부인이 기존의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엄마의 역할을 해주기 원하였다. 또한 혈연과 비혈연의 관계 차이는 모-자녀갈등에 영향을 미쳤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인은 결혼을 통해 편입된 비혈연관계였고 부-자녀관계는 생물학적으로 형성된 혈연관계였기 때문에 부인의 양육역할은 경직되고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2. 함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재혼가족에 대한 경험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가족생활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 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재혼가족의 갈등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가족치료에 참여한 재혼가족의 대화를 자료로 활용하여 재혼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역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가족치료적 개입방법이나 효과성을 다루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혼가족은 초혼핵가족과 다른 발달과정을 가진다. 즉, 기존의 형성된 가족체계들이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가족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많다. 특히 가족 안에 기존체계를 옹호하는 관점과 변화를 추구하는 관점들이 서로 적절한 적응과 통합의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역기능적이면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하고 가족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Watzlawick, Weakland and Fisch, 1974). 따라서 재혼가족의 갈등에서 내용적인 문제보다 과정과 맥락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체계의 항상성이 가족의 역기능을 어떻게 지속시키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재혼가족의 통합과 적응을 도울 수 있는데 유익하리라 본다.

둘째, 재혼가족에서 부모-자녀의 관계는 초혼핵가족의 부모-자녀와 사뭇 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대체로 재혼부모들은 초혼핵가족의 규범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갈등을 심각하게 겪을 수 있다. 재혼부모-자녀의 관계에서 연령은 중요하다. 특히 자녀들이 어린 아동일 때와 청소년기일 때에 접근하는 법은 달라야 한다(Hetherington and Jodl, 1994). 재혼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재혼부모는 적절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Minuchin, 1984).

셋째, 재혼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전문가들은 단선론적 인과관계가 아닌 상호작용의 순환적 인과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재혼가족의 문제가 복잡적이고 총체적이며 다양한 수준의 체계들과 연결되어 있고 일반적인 초혼핵가족의 생활주기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혼가족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론적 관점을 개발하는 것이 유의하리라 본다. 그리고 재혼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족 및 부부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한 가족인 4명의 관점과 경험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재혼가족의 형태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많을 것이다.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잘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의 연구도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재혼가족 형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의 내용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연옥(1999). 재혼모의 역할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41-62.
- _____(2002). 재혼가정 내의 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319-342.
- _____(2007). 해체된 재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재혼모를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2), 171-195.
- 김재엽·최수찬(2005). 스트레스 및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아내구타실태 비교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5(2), 187-222.
- 김재엽(2007). *한국의 가정폭력*. 서울:학지사.
- 김지영·최상진(2004). 아내폭행 원인에 대한 통합적 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77-95.
- 김효순·엄명용(2006). 재혼가족의 가족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역할긴장 변수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4), 127-155.
- 김효순·엄명용(2007). 청소년자녀가 있는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75-102.
- 박태영·김태한·김혜선(2009). 알코올 중독문제를 가진 재혼한 부인에 대한 가족치료사례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293-322.
- 연합뉴스(2009. 8. 15). 이혼 상담 1순위 '배우자 폭력'.
- 유영주(2007). *새로운 가족학*. 서울:신정.
- 정문자·정혜정·이선혜·전영주(2007).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학지사.
- 차연실(2004). 재혼모의 역할긴장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2009). 2008년도 이혼통계결과. www.nso.go.kr
- 통계청(2005). 1970년 이후 혼인이혼 주요특성 변동추이. www.nso.go.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7년 상담통계*. www.lawhome.or.kr
- Aguilino, W. (1994). Impact of childhood family disruption on young adults' relationships with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295-313.
- Amato, P. R., & Keith, B. (1991).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 Ambert, A. M. (1986). Being a stepparent: Live-in and visiting step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795-804.
- Bateson, G., & Jackson, D. D. (1964). Some varieties of pathogenic organization. *Disorders of Communication*, 12, 270-290.
- Beer, W. R. (1992). *American step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Booth, A., & Edwards, J. N. (1992). Starting over: Why remarriages are more unstable. *Journal of Family Issues*, 13, 179-194.
- Boss, P. (1980). Normative family stress: Family boundary changes across the lifespan. *Family Relations*, 29, 445-450.
- Boss, P., & Greenberg, J. (1984). Family boundary ambiguity: A new variable in family stress theory. *Family Process*, 23, 535-546.
- Boss, P., Caron, W., Horbal, J., & Mortimer, J. (1990). Predictors of depression in caregivers of dementia patients: Boundary ambiguity and mastery. *Family Process*, 29, 245-254.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Ed.), *Family therapy: Theory and*

- practice(pp. 65-89).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Burns, L. H. (1987). Infertility as boundary ambiguity: One theoretical perspective. *Family Process*, 26, 359-372.
- Carter, B., & McGoldrick, M. (1988).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 Work for Family Therapy* (2nd ed.0 Boston: Allyn and Bacon.
- Cherlin, A. J., Furstenberg, F. F. Jr., Chase-Lansdale, P. L., Kiernan, K. E., Robins, P. K., Morrison, D. R., & Teitler, J. O. (1991). Longitudinal studies of the effects of divorce on children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Science*, 252, 1386-1389.
- Clingempeel, W. G., & Segal, S. (1986). Stepparent-stepchild relationships and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in stepmother and stepfather families. *Child Development*, 57, 474-484.
- Coleman, M. & Ganong, L. (1997). Stepfamilies from the stepfamily's perspective. In I. Levin and M. Sussman (Eds.) *Stepfamilies: History, research, and policy*. (pp. 107-122). New York: Haworth Press.
- Cordova, J. V., Jacobson, N. S., Gottman, J. M., Rushe, R., & Cox, G. (1993). Negative reciprocity and communication in couples with a violent husban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4), 559-564.
- Currier, C. (1982). *Learning to step together: A course for stepfamily adults*. Palo Alto, CA: Stepfamily Association of America.
- Dainton, M. (1993). The myths and misconceptions of the stepmother identity. *Family Relations*, 42, 93-98.
- Demo, D. H., & Acock, A. C. (1996). Singlehood, marriage, and remarriage: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hips on mothers'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388-407.
- Dunn, J. (1995). Stepfamilies and children's adjustment.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73, 487-489.
- Ferm, E. (1984). *Stepchildren: A national study*. London: NFER-Nelson.
- Fine, M. A. (1995). The clarity and content of the step-parent role: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4, 19-34.
- Furstenberg, F. F. (1987). The new extended family: The experience of parents and children after remarriage. In K. Pasley, & M. Ihinger-Tallman(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 Current research and theory*(pp. 42-61). New York: Guilford.
- Furstenberg, F. F. Jr., & Spanier, G. B. (1984). The risk of dissolution in remarriage: An examination of Cherlin's hypothesis of incomplete institutionalization. *Family Relations*, 33, 433-441.
- Ganong, H. L., & Coleman, M. (1989). Effects of remarriage on children: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Family Relations*, 33, 389-406.
- Ganong, L. & Coleman, M., (2004). *Stepfamily Relationship: Development, Dynamics, and Intervention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 Ganong, L., & Coleman, M, (1999). New families, new responsibilities to help elderly divorced parents and stepparents. *Journal of Aging Studies*, 12, 271-290
- Goldenberg, L, & Goldenberg, H. (2007). *Family therapy: An overview*. Belmont, CA: Brooks/Cole.
- Greene, G. J. (1996). *An integrative dialectical-pragmatic approach to time-limited treatment: Working with unemployed clients as a case in point*. In A. R. Roberts (Ed.) *Managing crisis and brief treatment* (pp. 160-194). Chicago: Nelson-Hall.
- Guerin, P. J., Forgaty, T. F., Fay, L. F., & Kautto, J. C. (1996). *Working with relationship triangles: The one-two-three of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Guisinger, S., Cowan, P., & Schuldberg, D. J. (1989). Changing parent and spouse relations in the first years of remarriage of divorced fath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445-456.
- Haley, J. (1963). *Strategies of psychotherapy*. New York: Grune & Stratton.
- Hanna, S. L., & Knaub, P. K. (1984). Cohabitation before remarriage: Its relationship to family strengths. *Alternative Lifestyles*, 4, 507-522.
- Hetherington, E. M., & Jodl, K. M. (1994). Stepfamilies as settings for children development. In: A. Booth & J. Dunn(Eds). *Stepfamilies: Who benefits? Who does not?*(pp. 55-79). Hillsdale, NJ: Erlbaum.
- Hofferth, S. C., & Anderson, K. G. (2003). Are all dads equal? Biology versus marriage as a basis for paternal inve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213-232.

- Kerr, M. E. (1981). Family system theory and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pp. 226-264). New York: Brunner/Mazel.
- Kiernan, K. (1992). The impact of family disruption in childhood on transitions made in young adult life. *Population Studies*, 46, 218-34.
- Kurdek, L. A., & Fine, M. A. (1995). Mothers, fathers, stepfathers, and siblings as providers of supervision, acceptance, and autonomy to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 95-9.
- Madanes, C. (1981). *Strategic family therapy*. San Francisco: Jossey-Bass.
- McGoldrick, M., Gerson, R., and Shellenberger, S. (1999) *Genogram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Mills, D. (1984). A model for stepfamily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33, 365-372.
- Minuchin, S. (1984). *Family kaleidoscop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7).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Pasley, K. (1987). Family boundary ambiguity: Perceptions of adult stepfamily members. In K. Pasley, & M. Ihinger-Tallman(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Current research and theory*(pp. 206-224). New York: Guilford.
- Satir, V. (1988). *The new peoplemaking*.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atir, V., & Baldwin, M. (1983). *Satir Step by Step: A Guide to Creating Change in Families*.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mith, D. (1990). *Stepmothering*. New York: St. Martin's Press.
- Stewart S. D. (2005). Boundary ambiguity in step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26(7), 1002-1029.
- Sturgess, W., Dunn, J., & Davies, L. (2001). Young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y members: Links with family setting, friendships, and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6), 521-529.
- Visher, E. & Visher, J. (1988). *Old loyalties, new ties: A guide to working with stepfamilies*. New York: Brunner-Mazel.
- Visher, E. & Visher, J. (1990). Dynamics of successful stepfamili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14, 3-12.
- Visher, E. B., & Visher J. S. (1988). *Old loyalties, new ties: Therapeutic strategies with stepfamilies*. New York: Brunner/Mazel.
- Visher, E. B., Visher, J. S., & Pasley, K. (1997). Stepfamily therapy from the client's perspecti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6, 191-213.
- Watzlawick, P., Beavin, J. H., & Jackson, D. D. (1967). *Pra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 R. (1974). *Change: principles of problem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White, A., & Booth, A. (1985).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remarriages: The role of step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689-698.
- White, L. (1994). Stepfamilies over the life course: social support. In: A. Booth, & J. Dunn (Eds). *Stepfamilies: Who benefits? Who does not?*(pp. 109-137). Hillsdale, NJ: Erlbaum.

- 접수일 : 2010년 03월 15일
 심사일 : 2010년 04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7월 13일